

한국디카시연구소 입장문 2

디카시의 정체성과 문예운동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

한국디카시연구소가 문화기획으로 설립한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의 출범에 즈음, 최근 한국디카시인협회가 발표한 입장문 등은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새로운 기구의 설립 배경과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디카시의 창시자이자 연구소 대표로서, 그리고 2004년부터 22년간 디카시 문예운동을 이끌어 온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이유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의 출범은 특정 개인과의 갈등이나 조직 운영상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디카시의 정체성과 문예 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창립 정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는가

한국디카시연구소는 한국디카시인협회와의 분리를 결정하고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디카시의 정체성과 문예운동의 역사성을 더 이상 함께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디카시인협회는 2019년 한국디카시연구소의 문화기획으로 창립되었으며, 2020년 제1회 디카시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연구소와 함께 디카시의 창작·연구·교육·국제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협회의 운영 방향은 디카시의 본질과 문예운동의 역사에 대해 연구소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차이는 장르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디카시의 올바른 역사 인식 및 정체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학술·문예 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카시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디카시는 단순히 사진에 짧은 시를 덧붙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물 속에 현현하는 '날시'를 발견하고, 그 시적 충동으로 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써서 사진기호와 문자기호를 동시에 생성하여 하나의 통합 텍스트를 이루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서정양식입니다. 따라서 문자기호는 독립된 시가 아니라 사진기호와 결합할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장르 개념은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 가도』(2004)를 비롯하여 『디카시를 말한다』(2007), 『앙코르 디카시』(2010), 『디카시창작입문』(2017)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디카시인협회의 운영 방향은 이러한 장르적 정체성과 다른 인식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제1회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 제1회 창원 세계 디카시 컨퍼런스 자료집 기조강연 PPT입니다. 당시 협회장은 "필자는 사진 대신 영상이란 용어 사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진기호와 문자기호의 통합예술로 정립된 디카시의 개념을 차후는 동영상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견해의 취지였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20여 년간 구축된 디카시의 존재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2025년 제6회 국제디카시학술심포지엄(협회장 좌장)에서 당시 외부 발표자가 디카시에 동영상을 도입하자는 제안한 바 있어, 그 이후 많은 참석자들의 우려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로서 한국디카시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유튜브 공개 강연) 등을 통해 디카시에서 동영상의 도입은 디카시의 장르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5년 제3회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 개최사입니다. 협회장은 디카시를 "순간 포착의 사진을 찍고 여기에 촌철살인의 시 몇 행을 부가하는 새로운 한류 문예장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 같은 주요한 자리의 개최사에서 협회장이 디카시를 사진과 시를 단순히 결합한 형식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서술을 하는 것은 디카시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협회장은 강연이나 저술 활동을 통해서도 디카시 정체성의 혼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례로 2026년 출간된 차민기 디카시집 『하늘마중』의 해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협회장은 디카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존 시화에서 그림이 사진으로 바뀔 뿐이라며 그 기본 형식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부터 이 방식의 시쓰기를 해오다가 2007년에 디카시집 『꽃에게 받치다』(토방)를 펴낸 이상범 시조시인을 비롯하여, 당시 디지털 문학도서관을 운영하던 제주대 윤석산교수 등 여러 문인이 있었다. '디카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2004년에 첫 디카시집 『고성가도』(문학의 전당)를 펴낸 이는 창신대 이상옥 교수였다. 이 무렵부터 소규모 지역 문예운동으로 디카시의 론칭이 시작되었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고, 사회적 확장과 파괴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20년 한국디카시인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였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디카시의 정체성을 오독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윤석산 교수는 디지털한국문학도서관을 개설한 인물이지 디카시의 창작이나 장르 형성에 참여한 인물이 아니며, 이상범 시조시인 역시 시서화를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진 관련 시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범 시조시인의 사진 관련 시 작업도 디카시 창시 이후의 일입니다.(이상범 시집 『꽃에게 받치다』의 시집 해설을 내가 써서 그 정황을 잘 알고 있음)

더욱이 디카시의 등장 훨씬 이전인 1950년대 브레히트의 사진시집 『전쟁교본』 이후 사진과 시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외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 이미 황지우의 형태시나 신현림의 시에 사진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디카시는 이러한 사진시 계열과 달리, 디지털 시대의 창작 환경과 미학을 바탕으로 창작되

고 소통되는 새로운 서정 장르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디카시'라는 신조어와 함께 '날시'라는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테크아트이자 신체시로서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디카시의 정체성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협회장이 디카시의 장르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이러한 장르적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흔들릴 경우 디카시는 독립 장르가 아니라 기존 사진시의 한 갈래로 오인될 수 있으며, 그 존재 이유 또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연구소가 현재의 협회 운영 방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둘째, 디카시 문예운동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 차이

디카시 문예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디카시인협회 출범 훨씬 이전입니다. 협회는 앞서 지적했듯이 연구소가 추진해 온 문예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한국디카시연구소 문화기획을 통해 발기인 대회를 가지고 2020년 창립된 단체입니다.

2004년 4월 2일 창신대학교에서 최초의 디카시 「봄밤」이 창작되어 디지털한국문학도서관에 발표되었고, 6월까지 모두 50편이 연재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15일 문학의전당에서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 가도』가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틀 후인 동년 9월 17일 디카시 동인 다음카페 디카시마니아(현재 회원 2,000여 명), 창립, 2006년에는 무크 《디카시마니아》 창간, 2007년에는 반년간 《디카시》를 창간하였으며, 이는 오늘의 계간 『디카시』로 확장됐습니다. 2008년부터는 ‘경남고성국제디카시페스티벌’ 매년 개최, 2009~2011년 서울시 주최 ‘시가 흐르는 서울’ 디카시 낭독회(6~7월 매주 토요일), 2014년~2015년 대산문화재단(교보문고 후원) ‘교보 낭독 공감’, 2013~2022년 ‘오마이뉴스 디카시로 여는 세상 연재’, 2014년~2017년 ‘머니투데이’ 디카시 해설 연재, 2016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등재, 2016년 한국국립중앙도서관 ‘sns 시인 시대-디카시’, 2018년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2018년부터 해외 대학생 디카시공모전 개최, 국제교류 확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 연합고사 출제 등과 함께 2021년 고성 장산숲에 디카시 발원지 표지가 세워졌고, 2025.6년 중학교 교과서 디카시 수록 등과 함께 2025년에는 한국디카시연구소 죽사갤러리가 개관하면서 경남 고성은 디카시 문예운동의 발원지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의 차민기 디카시집 해설에서도 드러나듯, 협회는 이러한 역사적 축적과 연구소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협회 출범 이후 비로소 디카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해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디카시가 이미 독보적 문예 장르로 자리 잡은 2019년 이전 디카시 역사에는 협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카시 문예운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역사 기록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디카시의 상징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디카시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존하는 것 또한 장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운영 방향은 이러한 역사적 상징 공간과 그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디카시의 정통성과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신대학교는 디카시가 최초로 창작된 공간입니다. 창신대학교 문덕수 문학관에는 디카시존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도교수였던 문덕수 선생의 시론의 영향으로 디카시론이 체계화되면서 오늘날 문덕수문학관은 디카시의 대표적인 상징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 역시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창원시의 지원과 경남은행의 후원, 창신대학교의 교비를 기반으로 창신대학교와 문덕수문학관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 주최자인 협회의 운영 방향은 이러한 역사적 상징 공간의 의미를 소홀히 한 채, 문덕수문학관(관장 이상옥)이 중심으로 참여하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창원세계디카시페스티벌의 주요 토포스인 문덕수문학관을 배제하고 페스티벌을 진행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는, 협회의 이러한 운영 방향이 디카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디카시연구소가 협회와 더 이상 뜻을 같이하기 어렵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 이미 과거에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 발생

2023년 경남고성국제디카시페스티벌 이후, 한국디카시연구소에는 디카시의 창시자와 문예운동의 역사에 관한 제보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내용은 "디카시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디카시 문예운동의 중심은 어디인가"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와 한국디카시인협회가 사실관계를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관련자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당사자는 서면 사과를 했으며, 그 결과는 한국디카시연구소와 한국디카시인협회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디카시 문예운동의 역사 왜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다시 문단 안팎에서 "창시자는 따로 있고 이상옥은 디카시를 널리 알린 사람일 뿐이다", "이상옥이 디카시를 창시했지만 디카시의 정체성은 다른 누군가가 세웠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디카시연구소는 객관적 문헌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축적된 문헌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이미 검증된 디카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학 장르의 창시는 개인의 주장이나 여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창작과 발표, 최초의 명명, 최초의 이론 정립, 그리고 문예운동의 전개 과정 등 객관적인 역사적 기록과 학문적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바로잡았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디카시의 정체성과 문예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우리의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디카시의 정체성, 문예 운동의 역사성, 그리고 장르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더 이상 함께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디카시인협회와의 분리를 결정하고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를 창립했습니다.

국제디카시학회는 디카시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국제 학술기구이며, 한국디카시인회의는 디카시의 창작 원리와 장르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문예 단체입니다. 두 조직은 기존 협회를 대체하거나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카시의 창립정신과 학문적·문예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장르의 문제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지난 22년 동안 "사진시의 한 갈래가 아니냐", "새로운 장르가 아니다", "사진에 짧은 시를 붙인 것일 뿐이다"라는 수많은 비판과 오해에 맞서 디카시의 정체성과 문예운동의 역사를 지켜 왔습니다. 2023년 창시자 논란 역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장르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흔들리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창시자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백년, 이백 년 뒤에도 디카시가 독립된 문학 장르로 존속하기 위해 지금 그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내린 선택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디카시를 사랑하고 디카시의 정통성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어느 단체에 계시든 모두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카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협회의 운영 방향과 역사 인식으로는 한국디카시인협회를 디카시의 창립정신과 장르적 정체성을 온전히 계승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디카시연구소는 국제디카시학회와 한국디카시인회의를 중심으로 디카시의 학술화·제도화·국제화를 더욱 심화하여, 디카시가 세계적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서정 장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디카시의 미래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 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디카시의 정체성 및 역사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6년 7월 12일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 배상